

# 유해란·양희영·전인지 출격...LPGA투어 우승 경쟁 뜨겁다

2023 LPGA 신인왕 유해란



CME 챔피언십 우승 양희영



PGA 여자 챔피언십 우승 전인지



투어 첫대회 18일 개막...33개 대회·총상금 역대 최대 1억1800만달러  
8월 파리 올림픽 출전 티켓 경쟁 치열...한국선수 챔피언 나올까 관심

역대 최대 규모의 2024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이번 주막을 울린다.

LPGA 투어는 18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 컨트리클럽(파72-6617야드)에서 열리는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로 2024시즌을 시작한다.

이번 시즌 LPGA 투어는 33개 공식 대회로 진행되며, 총상금이 1억1800만달러(약 1567억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올해는 시즌 중인 8월 24일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6월 24일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출전 선수가 정해지는 만큼 매 대회 파리행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막전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십은 최근 2년간 LPGA 투어 대회 우승자만 나설 수 있는 대회로, 올해는 35명이 출전해 우승을 다툰다.

지난해엔 한국 선수가 한 명도 나서지 않았는데, 올해는 지난 시즌 신인왕 유해란과 시즌 최종전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자 양희영, 2022년 메이저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자 전인지가 출격한다.

2019년부터 열린 이 대회에선 지은희가 초대 챔피언에 오른 뒤엔 한국 선수의 우승은 없다.

교포 선수로는 리디아 고(뉴질랜드), 다니엘 강, 앤드리아 리(이상 미국), 그레이시 김(호주)이 출전한다.

지난 시즌 메이저대회에서만 2승을 올리는 등 4승을 쓸어 담아 올해의 선수를 차지한 세계랭킹 1위 릴리아 부(미국), 지난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자인 세계 2위 인뤼빙(중국), 세계랭킹 5위 넬리 코다(미국) 등도 우승에 도전한다.

브룩 헨더슨(캐나다)은 이 대회 사상 첫 타이틀 방어를 노린다.

이 대회에선 2019년 지은희를 시작으로 2020년 가비 로페스(멕시코), 2021년 제시카 코다(미국), 2022년 다니엘 강, 지난해 헨더슨 등 매년 각기 다른 우승자가 나온 바 있다.

다른 종목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이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치르는 점은 이 대회의 특징 중 하나다.

유명 인사들의 성격은 이글과 버디, 보기 등 매출 성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LPGA 투어 선수들과는 별도로 순위를 매긴다.

은퇴한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지난해에 이어 유명 인사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왕년의 스타 존 스톨츠, 미국프로농구(NBA) 명예의 전당 가입자인 레이 앨런, 미국프로풋볼(NFL) 출신의 래리 피츠제럴드, 미국 축구의 '전설' 랜던 도너번, 배우 브라이언 바움가르트너 등도 나선다. /연합뉴스

## 전남도청 최세빈, 사브르 국제그랑프리 동메달



사브르 국제그랑프리 여자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최세빈이 시상식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제펜싱연맹 제공)

### 국제대회 개인전 첫 메달

펜싱 최세빈(전남도청)이 국제대회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따냈다.

최세빈은 지난 12-14일 튀니지 튀니스에서 열린 사브르 국제그랑프리 개인전에서 키아라 모르밀레(이탈리아)와 공동 3위에 오르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국제 그랑프리 대회는 31개국 186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최세빈은 사브르 여자부 개인전 32강에서 엘레나 에르난데스(스페인)에 15-11로 승리하고, 16강에서 사라 노우트차(프랑스)를 15-11로 꺾었다.

8강에서는 팀 동료인 전은혜(인천중구청)를 만나 15-11로 승리했고, 준결승에서 엘비 니사누르(터키)에게 14-15로 아쉽게 패하며 동메달을 따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에 출전해 동메달을 합작했던 최세빈은 국제대회 개인전에서는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했다.

1위는 루시아 마르틴 포르투게스(스페인), 2위는 니사누르 에르빌(튀니지)이 차지했다.

최세빈은 "국제대회 개인전에서 처음 메달을 획득해 매우 기쁘다"며 "경력을 유지해 파리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kwangju.co.kr

## 김시우, 3년 만에 사막 코스 우승컵 탈환 도전

세플러 등 '톱30' 12명 출사표  
김주형·임성재·이경훈 등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에서 타이틀 방어를 실패한 김시우가 이번에는 3년 만에 사막 코스 왕좌 탈환에 도전한다.

김시우는 19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에서 열리는 PGA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총상금 840만 달러)에 출전한다.

라킨타는 김시우가 2021년 우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기분 좋은 곳이다.

당시 3년이 넘도록 우승이 없어 애를 태웠던 김시우는 페트릭 캔틀레이, 토니 피나우(이상 미국) 등 경쟁한 추격자들을 물리치고 우승하면서 통산 3승을 달성했다.

지난 15일 소니오픈 2연패는 아쉽게 무산됐지만 김시우는 좋은 추억이 있는 대회에서 또 한 번 반등을 노린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남부 캘리포니아주 사막 도시 라킨타에 있는 3개 코스를 번갈아 도는 독특한 방식으로 치른다.

1~3라운드는 피트 다이 스타디움 코스(파72-7187야드), 라킨타 컨트리클럽(파72-760야드), 니클라우스 토너먼트 코스(파72-7147야드)에서 번갈아 치르고, 최종 라운드는 피트 다이 스타디움 코스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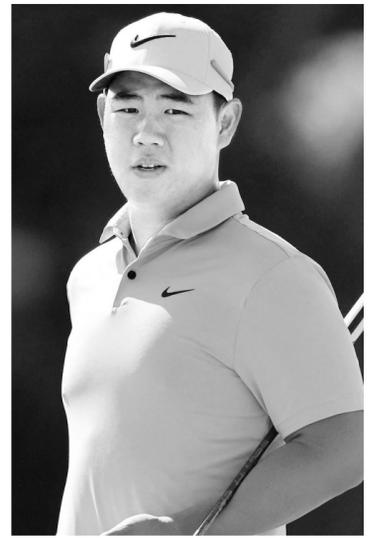
156명의 선수가 3라운드 끝난 뒤 공동 65위까지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다.

라킨타는 59타, 피트 다이 스타디움과 니클라우스 토너먼트 코스는 각각 61타가 코스레코드를 만든 난도가 낮은 편이다.

지키는 골프가 아니라 버디를 노리는 공격적인



김시우



김주형

플레이가 요긴하다.

지난 8일 끝난 개막전 더 센트리어에서 PGA 투어 72승 최다 버디(34개)를 쓸어 담은 임성재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이유다.

PGA투어닷컴이 선정한 우승 가능성 1위는 김주형이다.

PGA투어닷컴은 김주형이 사막에 조성된 골프 코스인 라스베이거스의 TPC 서머린에서 두 번이나 우승한 사실을 높게 평가했다.

이경훈과 김성현도 이 대회에 출전해 이번 시즌 한국인 첫 우승의 기대를 모은다.

소니오픈에서 준우승한 안병훈은 이 대회는 건

너편다.

미국 교포 김찬, 마이클 김, 존 박, 그리고 호주 교포 이민우도 출전한다.

총상금 840만 달러로 특급 대회는 아니지만 세계랭킹 1위 스킵티 세플러와 캔틀레이, 잰다 쇼플리(이상 미국) 등 세계랭킹 6위 이내 선수 3명이 나온다.

세계랭킹 30위 이내 선수 12명이 출전하는 만큼 우승자를 점지기가 쉽지 않다.

개막전 우승자 크리스 커크(미국)와 소니오픈 챔피언 그레이스 머리(미국)는 시즌 두 번째 우승을 겨냥하고 출사표를 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외계+인 2부
2관	위시,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인투 더 월드
3관	노랑: 죽음의 바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텀 머니
4관	신차원 쟁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 날아라 수제김밥-, 외계+인 2부
5관	서울의 봄
6관	위시
9관	신차원 쟁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 날아라 수제김밥-, 노랑: 죽음의 바다, 인투 더 월드
7관 씨네마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작은 아씨들, 킹덤 3: 운명의 불꽃
8관 씨네마	김위에 김대중, 더 퍼스트 슬램덩크: COURT SIDE in Theater, 스템의 문단속: 다녀왔어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80회 정기연주회  
**2024 신년음악회 Festival**  
일시: 2024-01-16(화) ~ 2024-01-17(수) 19:30  
장소: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062-613-8241

GAC 공모전시 정승희 개인전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일시: 2024-01-17(수) ~ 2024-02-18(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062-613-8357

즐거움  
**문화산책**